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SNS에서 따뜻한 에피소드를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길 한복판에 폐지가 가득한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노인 옆에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함께 가는 어느 여성의 모습이었다.

목적지까지 비를 맞으며 모시고 간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상실감에 젖어있는 추운 계절에 마음의 온도를 올리기에 충분했다. 나날이 눈부시게 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과 반비례로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는 요즘에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올해 최고의 화두는 '생각하는 AI'인 '생성형 AI'의 출현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착하여 다가오는 느낌이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탑재된 AI는 13개국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실제 사용해 보니 일상 대화는 물론 어려운 말도 대략 뜻이 통하는

AI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수준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최근 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실 정도이다. 2021년 미국의 전 외무장관 키신저(Kissinger), 구글의 전 CEO 슈밋(Schmidt), MIT 학장 허튼로커(Huttenlocher)가 공저를 한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AI가 인간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2년여 지난 2023년 키신저 등 3명의 공저자들은 웰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Chat GPT가 지적 혁명(Intellectual Revolution)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스는 직업 세계에서 AI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졸업자의 75%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만큼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술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일과 삶의 현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AI의 활용으로 많은 것이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더 강해지고 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창의적인 사고를 생략한 채 습관적으로 AI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사회라면 'AI에 지배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주도적으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 번째는 교육현장에서 AI를 이해하고 잘 다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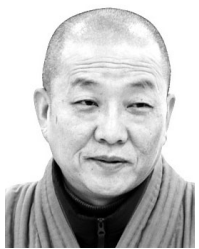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학문과 직업세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습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탁월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과 더불어 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50대 후반의 은퇴한 세대도 30~40년 AI를 활용해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술발전을 다룰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인성과 창의력이다. 사람이 AI보다 탁월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품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소화할 수 있는 인간적인 소양이다.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함양해주는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적인 이해 능력, 동료와 함께 협업 공동체를 결성하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소양을 개발하여 AI의 발전을 충분히 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에게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가까이 우산과 따뜻한 마음을 내어준 여성을 보면서 AI시대를 맞는 우려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품성을 바탕으로 이웃과 연대하고 AI에 지배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여 긍정적인이고 효율적인 현재를 살아가려면 '기술 지배의 차가운 개인주의 사회'가 아닌 '사람 냄새 가득한 AI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종교칼럼

의외의 의외



중현
광주 정심사 주지

오래 전에 서울을 떠나, 남녘 땅을 떠돌던 어언 26년이 넘었다.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지금껏 한번도 서울을 떠난 길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전히 서울을 떠나길 잘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 타이페이 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으로 일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시끄럽고 낯은 버스를 타고, 사람 하나 겨우 다닐 만한 좁은 인도를 지나, 마치 동네 마실 가듯, 아침에 학교 가듯, 그렇게 국립고궁박물관에 무시로 갈 수 있는 타이페이 사람들이 무척 부러웠다. 나는 하복과 땅에 얽힌 돈을 뿌려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다.

속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680번 버스를 탔다. 버스는 꽤 오래되었는지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손님은 거의 없다. 대략 20여분을 갔을까? 터널을 지나니 갑자기 세상이 첩첩산중으로 바뀐다. 그리고 곧바로 국립고궁박물관 앞이다.

박물관 앞이라고 구글 맵이 알려주긴 하는데 내려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국립박물관 같은 국가적으로 비중있는 건물이 있을 법한 거리 풍경이 아니다. 어느 도시의 번두리 느낌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다. 이 부근

은 산 기술의 오래되고 낡은 번두리 느낌의 동네다. 인도도 사람 하나 겨우 다닐 만큼 좁다. 이런 곳에 세계 4대 박물관 중의 의외라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박물관 주변의 소박함이 의외로 더가운다.

정감 넘치는 좁은 길을 10여분 채 걸지 않아 박물관 입구에 도착했다. 사진과 영상으로 술하게 봤던 바로 그 입구이다. 낯선 곳 투성이인 곳에서 익숙한 것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들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규모가 의외다. 입구에서 박물관까지는 본관 건물을 올라다 보며 큰게 뻗은 넓은 길을 걷는다. 웅장한 스퀘어의 성벽같은 구조물이 정면을 가로막고 서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본관 건물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의외다.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실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 또한 의외다.

그런데 그 안에 전시된 전시품 하나 하나가 볼 때 기쁨 정도로 엄청난 매력을 발산한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대보다 소박했던 여러 인상들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 버린다. 저것이 과연 300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일까 의심될 정도로 정교하고 세심하고 기품 있다. 방심한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반전이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전시품들이 너무도 평범하게 전시되어 있다. 전시품의 높은 가치를 일부러 애써 무시하며 "별 거 아닌데 뭘 그려나?"는 식이다. 이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표현하는 방식인 듯하다. 심지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70여만점의 소장품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대륙에서 쫓겨나 머나먼 남녘 바다 작은 섬에 보따리를 풀어야만 했던 패배자의 자존심

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디까지나 이전 세대의 생각인 듯하다.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은 새롭게 남원을 크게 지었다고 한다. 사진을 보니 외벽 전체가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현대식 건물로 매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인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공들여 잘 지어진 박물관의 모습이다. 이들도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할 모양이다.

박물관은 마땅히 실 것도 딱히 없다. 전시물을 구경하느라 지친 심신을 쉬기 위해 복도 의자에 앉았다. 시끌벅적한 복도의 소음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비현실성은 관람객의 소음 때문이 아니라, 전시물들 하나 하나에 들어간 옛 사람들의 엄청난 시간과 공력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현실에 엄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우리들의 눈앞에서 여전히 견재하고 있는 것이리라. 오히려 관람객들의 가볍디 가벼운 잡담들이 현실에 초연한 저들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한 인생은 그저 사는데 그치지 만 현실에 초연한 삶은 시공을 초월한다. 현실에 초연한 삶은 현실에 끌려 다니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주도하는 삶의 자세에서 나온다. 시공의 초월은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한 결과이며, 가치있는 삶은 세월과 공간의 제약 없이 넘어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의외의 의외다. 전시물 앞에 서기까지의 여러 의외는 다만 나와 다른 현실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전시물에서 받은 의외는 현실에 초연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온고지신의 맛이란 이런 것일까?

고향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날 고향이 문학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물고기 바다에서 헤엄치듯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작가는 아니지만 나 역시 고향인 강진을 다녀오는 날이면 본능적으로 강진에 대하여 쓰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강진 병영마을 한 골목길 물담은 어느 시골마을을 돌담과 다르다. 총마다 엇갈리게 쌓아올린 빛살무리 형식의 카누는 물담, 이른바 청어배 모양에서 유래한 '헤링본 패턴'은 하멜이 가르쳐 준 네덜란드식 담쌓기라 하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상상하게 된다. 강진의 수많은 청자가마터 근처를 걸다가 문득 발견하게 되는 사금파리 한 조각에도 수백 년 전 도공이 품었을 법한 꿈과 열정이 반짝거린다.

12세기 찬란했던 강진의 비색청자는 강진 마량포구에서 500km 뱃길을 달려 개경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일본에 집현전 조선 도공들에 의해 발전한 일본 도자산업은 마침내 최초의 글로벌 기업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일본 나가사키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도달하는 대항해 무역의 길로 이어진다. 이 길이 바로 고대 동서양을 연결했던 교역로 '실크로드'에 버금가는 '바다의 길-도자기의 길'이었다.

그 길이 만들어진 시기는 하멜이 동인도회사의 무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도, 강진 등에서 역류되었던 때와도 겹친다. '하멜 표류기'를 보면 조선도 하멜을 통해 네덜란드와 해외무역에 성사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꼬리를 문다.

비단 강진뿐이겠는가. 전남에 고향을 두었다면 누구나 자신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가 차고 넘치리라.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서사가 예항 전남이 문항으로 서도 눈부신 성취와 불후의 명작들을 낳은 까닭이기도 하다. 어쩌면 전남의 문화자산은 현재 글로벌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K-컬처의 정수이자 본령이고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문화재단은 이처럼 풍요로운 문화자산을 2차, 3차 콘텐츠 생산으로 연결하여 세계시장에 내놓을 메가 브랜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일 때야 우리 국민도 감동한다는 대전제로 출발하고 있는 메가 브랜드 사업은 전남의 전통문화예술에 비전을 담아 익숙하지만 한없이 새로운 '오래된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남을 통해 세계를 가로질러 나가는 새로운 문화로드를 개척하는 일이고, 그 첫걸음은 '전남의 예술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를 실현하는 일이다.

社說

현역 물갈이 여론 확인된 민주당 광주경선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 경선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광주 동남갑은 정진숙 당 대표 정무특보,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 북구 을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승리했다. 세 곳 모두 현역인 윤영탁·조오섭·이형석 의원과 2인 경선으로 치러졌는데 현역이 모두 패배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3개 선거구에서 먼저 경선이 진행됐는데 '현역 전멸'이라는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불출마 선언이나 컷오프가 아닌 경선을 통해 민주당 현역이 탈락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현역 물갈이 여론이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경선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현역 물갈이 여론이 그만큼 컸다는 의견이 많다. 텃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4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대해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도전자들은 일

반적으로 지명도가 낮아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불리한데 이번 경선에선 현역 의원을 이긴 곳도 많아 물갈이 여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권을 빼앗기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할 정도로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경고를 보냈는데도 갈팡질팡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경선을 통해 단일대오로 정권 심판에 나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주에 광주 동남갑과 광산읍에서 2차 경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5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이 진행된다. 이런 추세라면 4년 전 경선 때보다 더 많은 현역 물갈이(83%)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현역 물갈이 여론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5·18진상조사위, 요식행위 의견수렴이라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4년 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최종 결과 보고서(초안)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최근 광주시, 시교유청 등 6개 기관에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중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16일 광주지역 26개 기관 및 단체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문제는 진상조사위가 오는 29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이는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리 의견을 받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광주시는 한술 더 떠 각 기관·단체에 최종 보고서 공

개 예정일보다 앞서 의견 제출을 마치라는 공문까지 배포해 반쪽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상조사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려면 최종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데 의견제출 일자 29일로 정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내용은 뒷전인데 절차만 보여주는 요식행위란 것이다.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출범 이후 10개월이 지나야 조사위원회들이 활동을 시작했는가 하면 내부 위원간 소통 부재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미완의 5·18 과제를 대한 진상규명 책무를 맡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 진상조사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문제는 진상조사위가 오는 29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이는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리 의견을 받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광주시는 한술 더 떠 각 기관·단체에 최종 보고서 공

無等鼓

천적이나 친구는 물론 심지어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일지라도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러시아 현지에 남아있던 푸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최근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암살·은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수일째 사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발니의 모친이 급기야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 행불 사귀했을 기도한다. 그 자의 가족들은 항쟁 발 발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식이 돌아오길, 만약 숨졌다면 유골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한다.

가족의 무사귀환이나 생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에 신이 응답한 전설이나 신화는 여럿이 있다. 그 중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케익스와 알키오네'의 이야기는 부부의 애절한 사랑을 그려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 작품으로 탄생했다.

테살리아의 왕인 케익스는 알키오네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나라이 여러 재앙이 나타나고 형제의 가족

들이 숨지는 등 불안한 사건이 잇따르자 아폴론의 신탁을 받기 위해 두 달 가량의 뱃길을 떠난다. 격정스러운 마음에 극구 만류하면서 함께 떠나겠다는 알키오네를 간신히 떼놓은 케익스는 결국 폭풍을 만나 숨지고 만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알키오네를 부르던 케익스는 자신의 시신이 파도에 떠밀려가 아내의 손에 닿기를 기도한다.

남편이 죽은 줄 모르는 알키오네는 가정의 수호신인 헤라에게 매일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도한다. 그 녀를 딱하게 여긴 헤라의 지시로 꿈의 신 모르페우스는 알키오네의 꿈 속에 케익스의 모습으로 현신해 사망 사실을 알려준다. 바닷가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알키오네는 비통한 마음에 바닷가 절벽에서 몸을 던진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손길로 알키오네는 물총새로 변한다. 부부를 가엾게 여긴 신들이 남편과 같은 새로 환생시켜 줬다는 얘기가.

사랑자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기본 정서이다. 러시아는 즉각 나발니의 시신을 모친에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채희종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

기고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자이자 중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모옌의 고향은 산둥성 가오이 동베이 향이다. 작가의 고향은 늘 비가 내렸고 여름이면 큰 물이 범람했다. 키 작은 농작물은 물에 잠기곤 해서 드넓은 땅에 키 큰 수수를 심어야만 했다고 한다.

작가는 수수밭을 무대로 삼아 황일 이야기와 사랑이 야기로 상상을 펼쳤다. 확실히 좋은 소설은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드는 것 같다. 광활한 붉은 수수밭, 타오르는 붉은 태양 등 강렬한 색채 이미지로 기억되는 영화 속 여러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진다.

모옌은 에세이집 '고향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에서 작가가 풀어놓은 이야기보따리 속 고향이 어떻게 소설이 되었는가를 자세히 들려준다. 탈출하다시피 고향을 떠난 뒤 한동안 고향을 억누르며 삼켰던 모옌은 훗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선 222-4918
2024년 2월 23일 금요일